

행복한 책 읽기

오월문학총서 (시·소설) <문학동네 펴>

오월이 왔다. 따가운 봄벌 아래, 상무대 영창 자리에 물러블레이드를 타고 노는 아이들과 함께 오월이 다시 찾아왔다.

5·18 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고통스럽지 않은 시민은 없으리라. 지난 정권 이후로는 더욱 마음 둘 데가 없어졌다. 올해는 또 무슨 어지장을 놓을까 싶었는데, '입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입을 틀어막고 똥니를 부린다.

역지로 불렸던 노래였다.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 일제히 불렀던 애국가'와는 달랐다. 눈물을 닦고 가슴속 통증을 견디며 불렀던 노래였던 것을, 그대로 두면 될 텐데 인위적 수단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바꿔버리겠다는 심보가 참 못했다. 자연을 거스르는 역사는 퇴보한다.

대신 작가들은 물을 만났다. 태평성대였다면 할 말이 많았는가.



을 중심으로 학살의 참상과 진상 규명, 항쟁의 진실과 기억의 현재성, 인간해방과 민주주의 실천 등 참다운 오월정신의 계승과 발전에 부합되는 작품들을 차례로 다뤘다. 오월시를 총망라한 것이다. 항쟁 직후에 소설로 오월을 형상화하기란 쉽지 않았다. 오월이라는 말조차 금기시되던 시절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광주를 증언하려 했던 책무가 모든 시인 작가에게서 꿈겨졌다. 오월은 글을 써야 하는 이유였다.

문학으로 기억하는 오월

비뚤어지고 뒤틀린, 심각한 세상 일수록 작가에게는 호재다. 슬거리가 많아지는 세상이 원망스럽지만, 원망은 모여 고스란히 문학이 된다.

오월문학을 집대성한 '오월문학총서'의 의미는 매우 소중하다. '5·18 기념재단'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오월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오월문학총서'를 발간했다. 흩어져 잊힐 수 있는 작품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묶었다.

168편 시인의 시 206편이 실린 1권과 13편의 소설이 수록된 2권이 작년에 먼저 간행되었고 올해는 희곡과 평론집이 나올 전망이다. 시의 경우, 5·18의 총체성과 민족사적 의미를 담아낸 시편들

그러면서도 문학이랍시고 끄적거린 글썩은 항쟁의 진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보다 더 쓸모없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살아 남은 자가 감내해야 했던 내상의 흔적들이 시간을 넘나들며 작가를 들쭉했다.

허투루 오월을 써먹은 작품들, 오월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는 짓을 하는 자들에게는 호된 꾸지람이 내려졌다.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던 시인의 일갈은 아직도 유효하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문학관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넘치는 자의식과 유약한 감정 분출, 소소한 신변잡거 일상에 매몰되어 있는 요즘 작품 경향 속에서 '오월문학총서'는 의연하기만 하다.

현실에서 겪게 되는 비민주적인 억압과 불편부당함에 대하여 정의로운 시선을 갖고 또렷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월문학 정신이라면, 오월문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광주문화재단 '2014년 지역협력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꿈 많은 청년작가들에게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다. 창작 공간과 창작비를 지원받고, 프로그램 참가 작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 시키면서 작가로서의 위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 '창작'의 개념을 탈피, 해외 작가들과의 교류와 함께 국내

미태-우드로 '놀고 먹는' 무등현대미술관 '예술을' 광주미협 '포장작스튜디오'

구성됐다.

국제 레지던시 작가들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제26회 광주시미술대전에서 'Beautiful loser'라는 작품으로 조각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배수민 씨를 비롯해 송수연, 이인성, 황혜원



▲대안공간 미태-우드로의 '놀고 먹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배수민, 황혜원 등 국내 작가와 일본, 필리핀, 미국, 태국 등 국의 작가의 협업이 기대된다.

레지던스, 예술 창작 꽃 피울 '소통의 場'으로

작가들의 해외 무대 진출의 기회가 되고 있다. 작가들도 자신만의 세계에서 탈피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예술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지역 사회에 '치유'와 '재생'을 심는 역할도 한다. 광주문화재단 '2014년 지역협력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대인시장에 지난 2009년 등지를 틈 대안공간 미태-우드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놀고 먹는 레지던스'를 운영한다. 작가들에게 결과물을 강요하지 않기 위해 '놀고 먹는 레지던스'라고 이름지었다. 프로그램은 국제 레지던스, 예술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국제 독립공간 워크숍으로

지역 주민에 예술적 접근 시도... 치유·재생 역할까지

씨 등이 참여한다. 미태-우드로와 교류 중인 태국, 필리핀, 대만, 네팔지역 예술공간에서 낯익은 국외작가 4명도 함께 한다. 이들은 대인시장이라는 환경을 바탕으로 서로 교류와 체험을 통해 느낀 다양한 감정을 작품에 녹일 예정이다.

지역 예비 예술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진행되는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광주지역 미술대학, 대학원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작가의 주제 선택, 재료 사용, 이미지 시각화 방법, 전시 기획, 전시 진행 등을 교육한다. 국제 독립 예술공간 워크숍에서는 해외 독립 큐레이터와 대안공간 디렉터들이 해외 독립 예술 공간의 운영 사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등현대미술관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전통 마을을 재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6~11월 '예술을 꿈꾸는 마을-자연, 인간 그리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바다해, 송지윤, 이화, 이승일, 조선이씨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다. 주민들을 친숙하지 않던 예술에 동

화시키면서 낙후되고 노령화된 마을을 '예술을 꿈꾸는 마을'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작가들은 무등산이라는 큰 자연을 마주하면서 느낀 감정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주고 받고, 마을과 주변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게 된다. 입주 작가들의 작업을 주민과 일반에 공개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예술을 꿈꾸는 마을 축제'와 '인간, 자연 그리고 예술'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워크숍도 예정돼 있다.

프로그램 기획자는 "성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삶과 이야기, 환경적 요소를 끌어내 문화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인 마을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황룡강과 용진산 자락에 위치한 광

주지 공산구 옛 분당중학교에서도 광주지역 작가와 해외 작가가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광주미협이 지난 4월부터 '아시아예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중인 이 프로그램에는 박세희, 범소연, 백종환, 장진수, 홍원철 등 국내 작가들과 아자 마리스, 닐 페이안 등 두 명의 말레이시아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작가들은 같은 창작 공간에서 서로 다른 창작과정을 경험하면서 국내외 교류 커뮤니티를 형성해가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국내 작가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빛고을문화관 건립추진위원장 사퇴하라"

지역문화예술인 강력 촉구... 시 "일부 변경 고려, 전면 교체는 검토 안해"

황하택 빛고을문화관(이하 문화관) 건립추진위원장이 부지 소유주에게 기금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은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와 광주민예총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 <사건>을 열어 "불미스러운 사태의 당사자인 황 위원장과 이를 방기한 추진위원 전원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주시와 시의회는 추진 과정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문화관 콘텐트 개발과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체 구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이자 "부지 선정 절차의 부처절함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하자 없다는 이유로 강행을 한 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향후 제기된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와 지역문화예술계와 연대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이자 "부지 선정 절차의 부처절함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체 수습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일부 위원 변경 내지 보강은 고려할 수 있지만 전면적인 위원 교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가 나서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문화인들의 역량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kwangju.co.kr

젖어드는 감성... 피아노 건반의 향연

이상록 열번째 독주회,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슬프도록 아름다운 감성이 가득한 피아노 선율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1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목요상설무대에서 피아니스트 이상록(사진)의 열 번째 독주회 '피아노를 노래하다'를 선보인다.

이상록은 조선대 음악교육과, 러시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피아노 앙상블 '신클라이버'와 '위즈 앙상블'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공연은 '오래된 미래' 등 삶과 사랑에 관한 다섯 가지 주제를 이상록 특유의 잔잔한 스토리텔링으로 무대를 꾸민다. '오래된 미래'는 바흐와 모차르트의 환상곡 작품으로 우수에 젖은 감성을 표현하고, '삶과 인간, 그리고 자연'에서는 인생의 희비극을 아름다



운 서사로 옮긴 슈베르트의 '즉흥곡 op.90'을 만날 수 있다. '우아한 낭만'은 독특한 프랑스적 감성을 살린 작곡가 포레의 작품을, '시인의 노래'는 피아노 음악을 유려한 시로 끌어올린 쇼팽의 '야상곡', '봄날의 소풍'은 차이코프스키와 라흐마니노프의 '벚꽃'을 서정적이고 아련한 연주로 선보인다. 7세 이상 관람 가능. 전석 2만원. 문의 062-670-7492. /이보림기자 boram@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다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YONAMJA

STEAK / PASTA / PIZZA / BEER

Ielysia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